

조소교육의 특성과 지향과제

류 종 민
중앙대 조소학과 교수



1. 서 언

현 금 대학 조소과의 현황과 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학과 운영의 실태를 분석 비교해 본 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물론 이것은 한 개인의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자칫 개인의 주관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의 바람직한 상태란 여러 사람의 논의이념을 거쳐 합의이념에 이른 하나의 모형을 제시함이 가장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이념은 방대한 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하나의 문제제기와 방향설정의 논의만을 위한 자료로 이러한 기획이 주어지지 않았나 한다.

사실 예능교육에 있어서 객관성을 지닌 하나의 모형을 제시한다는 것은 예능교육의 특수성과 세분된 전문성에 비추어 보아 다른 분야와는 달리 심히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다. 기실 그것은 교육의 목

적과 이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전혀 다른 양태일 수도 있겠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미술교육의 이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전개 내용과 모형은 많이 다를 수가 있다.

조소과도 크게 보아 미술교육의 한 범주이므로 대학미술교육이 어떠한 인간형성을 목표로 하느냐는 설정 안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소학과 교육의 특성에서 다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작가로서 유능한 조각문화의 창달자'라고 한다면 그 해석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조각가의 내용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확대해서 어떠한 이상형까지를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다음 조소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전 대학을 비교 분석할 수는 없으므로 비교적 시간적 지속성을 지니고 개정해 왔던 몇 대학과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 있는 몇 과를 선정해 그 현황과 실태를 살펴 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 선정된 대학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범례일

뿐이라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다른 예능과도 그리 하겠지만 조소과는 그 나름대로의 대학별 특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 장단이나 호오를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이나 획일성에서 진일보하여 정말 명실공히 현실감각에 맞도록 혹은 미래지향적 전망에 부응하도록 참신성을 지닌 교육내용이 얼마만큼 주어져 있느냐는 것은 기초교육이나 전통의 개념과 함께 문화창달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의 조화를 위해서 한번쯤 성찰을 요하는 작업일 것이다. 진보주의적 입장만이 능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교육과정이 그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진부한 것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안이한 틀 속에 안주하지 않고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는 높은 수준의 논의가 끊임없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조소과의 운영면에서 교수진과 시설의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학생비와 적절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조소과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연루되는 점이 많을 것이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다룰 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상의 문제로 남기고, 조소과의 현황과 교육과정의 개괄적이고도 전체적인 문제점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현황과 특성

1994년 현재 전국 대학에 설치된 조소과 수는 11개과이고 조소학과 1개과, 환경조각학과 1개과, 환경조각과 1개과로 유사명칭으로 보면 조소과 내지 학과가 12개과, 환경조각과 내지 학과가 2개과이다. 여기에 미술교육과의 조소전공 숫자를 합치면 60년대만 해도 두세 과에 불과하던 조소전공교육의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 났다고 할 수 있다.

〈표 1〉 조소관련학과 설치대학 및 학생수

학과명 (학생수)	학교수	대학별 내역					
조 소 과 (373)	11	서울대	25	충남대	18	동아대	40
		성신여대	40	수원대	30	영남대	40
		원광대	30	이화여대	40	조선대	30
		홍익대	40	효성여대	40		
조 소 학 과 (30)	1	중앙대(안성)	30				
환경조각학과 (70)	2	서울시립대	40	경원대	30		

이에 조소과의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는 대학과 학생수를 살펴보면 위의 〈표 1〉과 같다.

다음으로 몇몇 대학의 요람에 소개된 조소과의 교육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3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요람에 소개된 조소과 교육목표는 아래와 같다.

본 학과는 조소예술의 표현력을 수련시키기 위하여 이론과 실기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과정에서는 입체공간개념에 대한 조형이론과 개발에 중점을 두며 전공과정에서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그 표현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본 학과는 전통성과 현대성의 유기적 조화를 바탕으로 일체의 실험활동을 권장해서 작가의 자질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의 교육목표는 이론과 실기의 균형,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개성과 창의에 중점을 두어 일체의 실험활동까지 권장한다는 진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사회적 미술교육의 중시를 잊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에서도 기초과정에서 입체공간에 대한 조형이론과 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조형적 미술교육의 이

념을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음에 제시할 필자의 現代美術教育의 理念에 대한 모형의 제 요소와 결부되는 몇 가지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은 이화여대 조소과의 교육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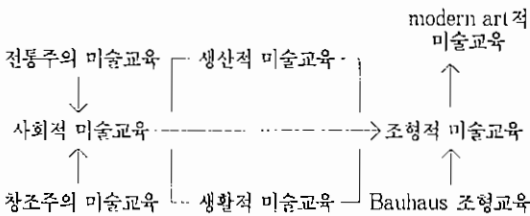
조소과는 새로운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미적 지각을 계발하고 기본적인 조형능력을 배양한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훈련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표현방법과 능력을 향상하여 올바른 작가관을 형성케 한다.

성신여대의 조소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조소과에서는 모델링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소조학습 체제의 바탕 위에 현대조각의 이념과 표현기법을 지도함으로써 다원화된 조각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포괄적인 조형학습을 통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우수한 조각가를 양성하는 데 교육목적을 둔다.

이외에 몇 대학은 서로 유사한 개념이므로 생략하고 전기한 필자의 현대미술교육의 이념에 대한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서 뉘넨이란 한 문화에서 단면적으로 지배적이고, 시간적으로 비교적 지속성있는 '지향성', '가치관', '태세'를 말한다.

<그림>은 현대미술 교육사조를 단면적인 개개의 이념으로 간주해서 그 이념의 지향성을 모형화해



<그림> 현대미술 교육사조의 모형

본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조소과 교육목표가 이 모형에 가장 근접해 있거니와, 이것은 교육과정의 입장에서도 자연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우선 교육목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우수한 조각가를 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조각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두 경우는 크게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나, 한 개인으로서의 작가를 양성하는 것과 그가 사회에 속해 있는 바의 제 문화적 소양인으로서 조각문화의 창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전자의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교양 및 미술이론 전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한 결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만도 아니어서 예능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순전한 작가양성만을 위주로 해서 디플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미의 특수한 미술학교의 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은 아카데미로서의 전문미술교육이 종합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실태에서도 보여지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도의 성패가 주목된다 하겠다. 물론 이러한 교육의 형태가 우수한 조각가 양성이라는 전자의 교육목표에 반드시 근접되어 있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이것은 미술교육 내지 조소과의 특수성과 연관되는 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속에 살고 살아가야 할 한 인격인으로서의 조각가, 폭넓은 의미에서 한 작가를 형성하는 정신적 인간적 품성의 배양을 위해서 또 고양된 조각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온 후자의 교육목표와 내용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조각가라고 해서 기능적 장인정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바에야 오늘날 다양한 문화의 핵심과 시대정신을 파악해서 자기창조의 바탕으로 하는 일은 중요하며 이는 실기와 병행해서 이론적 탐색

과 학구적 자세가 작품세계의 배경을 이룰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기실 이 점에서는 현대미술에 나타났던 몇 가지 양상이 이를 예증하고 있는 바이다.

단지 논리만으로는 미술이 될 수 없으므로 그럴 바에는 어정쩡한 결충식보다는 이 둘을 철저히 분리해서 한쪽만이라도 완전한 교육을 하자는 전자에 가까운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기에도 장단이 있는 만큼 함정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교육으로는 문화에 대한 의식, 창조적 세계의 다층적인 배경, 시대정신을 통찰할 예리한 안목을 키워줄 수가 없다고 본다.

예술적 입장에서 전문인은 결코 기능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목표의 명문만으로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유별된 것도 아니요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것은 외국의 경우를 포함한 필자의 유별일 뿐이다. 목표의 명분이 어떠한 간에 우리의 교육은 전문인력으로서의 조각가 양성이란 후자의 형태를 띤 실기와 이론의 절충과 조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는 앞으로 태동될 예술학교에서 다루어질 문재요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소과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소의 개념이 확대되어 조소과라는 명칭 자체가 한당한가에 대한 성찰을 요하게끔 된 현금의 상황에서 3차원에 해당되는 입체조형의 모든 장르를 다루어야 할 조소학과의 교육내용은 방대하다면 실로 방대한 것이요 그 질료와 소재와 기법의 부문에서도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그 개념은 이미 물질적 재료의 내용만으로도 조소의 범주를 훨씬 넘어 서는 것이며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조각의 개념과 범주만도 아니요 실로 건축과 공예를 제외한 3차원 예술의 전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塑', '刻'의 범위를 넘어서서 '造形'의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시준하고 있다.

현대미술에 있어 강도를 지니고 있는 입체분야의 제 양상이 조소과의 교육범주에 속한다는 것만으로

도 이미 彫塑科라든가 sculpture라는 전공명칭의 그릇으로는 담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보인다. 현대미술의 탈장르적 현상 중에 평면이 아닌 모든 분야가 입체조형의 성격을 띤 것은 당연한데 이 범주의 속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앞으로 발달된 매체와 재료와 기구가 개발되어 나올 때 조소과가 다루어야 할 소재와 기법은 이따까지인가? 끝없이 대응해야 될 내용과 과제가 조소과에는 많기도 하다.

3. 교육과정의 편성과 지향 방향

이 장에서는 몇 대학의 범례를 소개하고 그 특성과 지향적 방향을 살펴 본다.

서울대 조소과는 학사과정 전공교과목 이수 표준 형태라는 이름으로 4학년까지의 교과목을 다음의 <표 2>와 같이 설정해 보인다.

여기에서의 특색은 필수교과목이 3학년까지만 배정되어 있고, 단지 4학년 1학기의 조소과목만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2학기의 상이한 과목의 개설을 피하고 동일한 과목이 한 학년의 1, 2학기를 거쳐 진행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목조, 석조, 금속조는 2학년에서 4학년까지 6학기 동안 반복된다. 물론 조소도전 학년에 걸쳐 거의 필수과목으로 반복되나 1학년의 기초과목을 소조로 표현한 점도 특이하다. 소조와 조소의 개념을 교과목에서 유별하는 것인가? 조소는 모델링 이외의 개념까지 고학년이 되면서 포괄시키자는 것인가? 무언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조형, 재료기법, 현대 조각론 등은 교육목표에 명기한 현대성과 실험활동의 긴장에 연루된 교과목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아카데미즘의 규범을 엿보게 한다. 다음의 <표 3>은 홍익대 조소과의 교과목 이수표다.

여기에서는 기초과정 외의 전공선택에 목조, 석

〈표 2〉 서울대 조소과 전공과목 이수 표준형태

(*는 전공필수)

학년	학기	교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
1	1	*기초소묘 1	3	1	조형 3
		*기초소조 1			재료기법 3
		*기초디자인 1			조각론 1
	2	*기초소묘 2		조각사 1	
		*기초소조 2		2 *미술사 4	
		*기초디자인 2		*조소 4	
2	1	*미술사 1	목조 4		
		*조소 1	석조 4		
		목조 1	금속조 4		
		석조 1	조형 4		
		금속조 1	재료기법 4		
		조형 1	조각론 2		
	2	재료기법 1	조각사 2		
		미술해부학 1	4 1 조소 5		
		*미술사 2	목조 5		
		*조소 2	석조 5		
		목조 2	금속조 5		
		석조 2	조형 5		
3	1	*미술사 3	현대조각론 1		
		*조소 3	부조 1		
		목조 3	2 조소 6		
		석조 3	목조 6		
		금속조 3	석조 6		
		금속조 3	금속조 6		
		조형 6			
		현대조각론 2			
		부조 2			

조, 금속조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비교적 다양한 교과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1, 2학기에 걸쳐 있지 않고 한 학기만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오브제연구, 소형작업(미니어처), 현대조각연구, 이미지표현, 순수조형실기, 환경조각연구, 조형실기연구, 인스탈레이션 등이다.

여기에서 미술사는 거의 제외되어 있으며 다분히

〈표 3〉 홍익대 조소과 교과목 이수표

학년	이수 구분	교 과 목	1학기		2학기			
			학점	시수	학점	시수		
1	교양 선택	한국어문학의 이해(1)(2)	2	2	2	2		
		영어(1)(2)	3	3	3	3		
		필체	1	2	-	-		
		수전자계산개론(1)(2)	1	2	1	2		
		교양인문계열	2	2	2	2		
		선택체	1	2	-	-		
		기초조소(2-1)(2-2)	3	6	3	6		
		계소묘(1-1)(1-2)	3	6	3	6		
		열드로잉(1)(2)	2	3	2	3		
		교양기초회화(1-1)(1-2)	1	2	1	2		
		교양기초동양(1-1)(1-2)	1	2	1	2		
		전공선택	형(1)(2)	1	2	1	2	
2	전공필수	교양사회계열	2	2	2	2		
		선택자연, 예·체능계열	-	-	2	2		
		전공조소실기(1)(2)	2	4	2	4		
		전공조소(1)(2)	2	4	2	4		
		미술해부학	2	2	-	-		
		전오브제연구	1	2	-	-		
		공소형작업(미니어처)	-	-	3	3		
		선조소재료기법(1)(2)	2	2	2	2		
		택조소기법(1)(2)	1	2	1	2		
		교양어학계열	2	2	2	2		
		전공조소실기(3)(4)	3	6	3	6		
		전공미술개론	2	2	-	-		
3	전공필수	조소실기(3)(4)	3	6	3	6		
		전현대조각연구	-	-	2	2		
		공관화	2	4	-	-		
		선이미지표현	-	-	1	2		
		택순수조형실기	-	-	1	2		
		전공조소실기(5)	3	6	-	-		
		전공환경조각연구	-	-	1	2		
		전미술비평론	2	2	-	-		
		4	전공필수	전조각실기(1)(2)	3	6	3	6
				전조소(5)(6)	3	6	3	6
				전공형실습(1)(2)	2	3	2	3
				선조형실기연구	-	-	2	2
택조소실기(6)	-			-	3	6		
인스탈레이션	1			2	-	-		

실험정신과 연루된 교과목이 많은 점을 볼 수 있어 이것이 이 대학 교육의 특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는 이화여대 교과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조소과목의 명칭은 없고 기초에서부터 전공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전 과목의

<표 4> 이화여대 조소과 교과과정

학년	교 과 목 명			학 점		
				시간	1 2 학기 학기	
1	기	조	소	조 I	4 2	
	기	조	소	조 II	4 2	
	기	조	형 태	론	2 2	
	미	술	해 부	학	3 3	
	소			묘	4 2	
2	소			조 I	4 2	
	소			조 II	4 2	
	재	료		학	2 2	
	기	초	조	형	4 2	
	부			조	4 2	
3	소	조	표	현 I	3 3	
	소	조	표	현 II	3 3	
	조	형	분	석	2 2	
	조	형	미	학	2 2	
	기	초	목	조	4 2	
	기	초	석	조	4 2	
	조	각		론	2 2	
	테	라	코	타	3 3	
	기	초	동	양	화	4 2
	기	초	서	양	화	4 2
4	소	조	표	현 III	3 3	
	소	조	표	현 IV	3 3	
	금		속	조	2 2	
	형	태	분	석	2 2	
	석	조	표	현	2 2	
	추	상	표	현	3 3	
	목	조	표	현	2 2	
	구	상	표	현	2 2	

명칭은 '소조'로만 일관되어 있다. 또 목조와 석조가 3학년에 개설되고 금속조는 4학년에 개설됨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교과목은 기초형태론, 조형분석, 조형미학, 형태분석 등이고 추상표현이라는 교과목을 별도로 둔 점도 특이하다. 아래 <표 5>는 성신여대 전공과목 교과과정이다.

<표 5> 성신여대 조소과 전공과목 교과과정

이수 구분	학 년	과 목	1학기		2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전공 필수	1	소묘 1, 2	1 2	1 2		
		인체소조 1, 2	3 5	3 5		
	2	조형 1, 2	2 3	2 3		
		인체소조 3, 4	4 6	4 6		
	3	현대조각1(구상)(추상)	8 12			
	현대조각2(구상)(추상)			8 12		
	4	현대조각3(구상)(추상)	8 12			
		소 계	26 40	18 28		
전공 선택		조각사 1, 2	2 2	2 2		
		미술해부학 1, 2	2 2	2 2		
		사실조각			3 5	
		도조기법	2 3			
		석조기법	4 6			
		목조기법			4 6	
		제도	2 2			
		정밀묘사			2 3	
		유기체조각	2 3			
		기하학조각			2 3	
		오브제조각	2 3			
		수채화기법			1 2	
		서양화기법			1 2	
	관화	1 2				
	한국화기법			1 2		
	자유창작			8 12		
		소 계	18 25	25 37		
		총 계	44 65	43 65		

여기에서는 전공필수의 인체소조가 2학년까지 끝나고 3, 4학년은 '구상'과 '추상'이라는 현대조각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전공선택에서 유기체조각, 기하학조각, 오브제조각 등의 개설이 주목되는데 조각의 유별에서 유기체조각이란 명칭은 이 대학의 교과목에서 처음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교과과정이 이 대학의 특성을 만들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표 6〉은 비교적 최근(89년)에 창설된 충남대 조소과의 전공 교과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중후한 아카데미즘과 현대 조형교육의 절충을 볼 수 있겠으나 이론과 실기에 걸쳐 이렇듯 다양한 과목의 이수를 감내할 수 있을지 염려되며, 또 선택의 폭이 너무나 넓어 하나의 특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전인적 작가의 형성에는 일가를 이룰 수 있는 풍부한 교육내용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몇 가지 양상과 지향점을 결연에서 정리해 본다.

4. 결 언

이상에서 살펴본 몇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각 대학이 지니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의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획일화된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기란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조소과 교육의 목표설정에서 제시했듯이 어떠한 방향에 주안을 두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큰 유형으로 보면 다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카데미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조형실험의 내용을 병행하여 부가하고 있는 교과과정이다.

둘째, 기초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로운 조

〈표 6〉 충남대 조소과 전공 교과과정

(*는 필수)

학년	학기	과 목 명	학년	학기	과 목 명
1	1	* 기초조소 1	3	1	서양미술사 1
		* 기초조형			2 * 조소 4
		* 소묘		* 재료기법 4	
	2	* 인체소묘		표현기법 1	
		* 기초조소 2		조형 3	
		* 미술통론		서양미술사 2	
2	1	* 조소 1	4	1	* 조소 5
		* 재료기법 1			* 재료기법 5
		* 미술해부학 1		실기기법 1	
	조형 1	2	* 조소 2	표현기법 2	
			* 재료기법 2	조형 4	
			* 조소연습 1	미학개론	
	조각론	2	미술해부학 2	2 * 졸업작품	
			색채학	* 조소 6	
			도학	* 재료기법 6	
	3	1	* 조소 3	실기기법 2	
			* 재료기법 2	조형 5	
			* 조소연습 2	표현기법 3	
2		조형 2	미술비평		
		현대조각론	미술감상		
		관화			
동양미술사 1					

형실험의 교과목만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상기 두 경우의 절충식으로 다소 어느 한 쪽으로 경도되었을 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물론 이 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제4, 제5의 유형도 있을 수 있으며 학과의 엄격한 유별이 없는 전반적 조형교육의 유기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서로의 교과목이 개방되는 진보주의적 교육

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친 다양성, 과대한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고 참신한 교육내용은 유행적이고 즉흥적인 시대감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류의 예지가 쌓아온 방대한 전통과의 조화 속에 시대를 통찰하는 고양된 안목과 논의 속에서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여기에 미술교육자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 아무리 훌륭한 교과목을 개설한다 해도 그것을 강의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교과목에 따른 실질적인 지도내용이나 그것을 학습하는 태도나 자세가 모두 공히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할 것임은 당연하다. 같은 교과목, 예컨대 일반적인 교과목에서도 강의하는 내용과 방법 또 학습하는 태도에 따라 여러 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실기수업에 있어서 기자재와 수업공간에 대한 문제이다. 조소과의 한 학생이 실기수업에서 확보해야 할 공간이란 다른 어느 과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기본 및 절대공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소화할 공간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모델링의 회전대마저 서로 부딪치지 않고 돌아갈 만큼 여유있는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금의 실정이다. 하물며 전공선택의 목조, 석조, 금속조, 주조 등의 시설현황과 실기실의 공간확보

는 학생수에 비해서 심각한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조소과의 학생수가 최고 40명일 경우 이 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조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조소과의 증설과 이에 따른 배출학생의 양적 증가는 좋으나, 바람직한 교육환경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의 수를 갖추고 정제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임교수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문제, 교육내용과 환경, 시설과 공간의 문제, 교수와 학생의 적정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대학 조소교육은 앞으로 도래할 중차대한 조각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제구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류종민/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서울시 예술위원, 한국미술교육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대 조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현대미술초대전, 토론초대전, 아세아미술전, 인도 트리엔날 등에 출품하였고 7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주요 논문으로 "한국 곡목 형태미 고찰", "한국 조식탑파 연구" 등 다수를 발표했다.